25돌 맞은 포교사단…“우리는 행복한 포교사”

3월 8일, 동국대 중강당 기념법회
“리플레이 교육사업 정착 최선”
모범 포교사·군포교 활성 팀 시상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역단에서 올라온 포교사 450여 명이 함께해 그간의 활동을 격려했다.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입니다.”

일선에서 포교에 힘쓰고 있는 포교사들이 포교사단 출범 25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결집했다. 이들은 자축과 격려의 시간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포교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3월 8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포교사단 출범 25주년 및 제12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포교사단은 2000년 3월 김기병 초대단장을 필두로 공식 창단했다. 전국 7개 지역단을 설립해 지역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며 포교 활동에 나섰다. 현재 신규단원 538명이 접수해 총 단원 4599명이 13개 지역단과 LA지역단 323개 팀으로 편재돼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교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교사 정체성 고취와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 포교사단장에 따르면 포교사단은 2023년부터 불교문화해설사, 불교의례제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교문화해설사는 금년 진행 중인 7기까지 450명 배출 예정이고, 불교의례는 244명이 수료했다. 종단의 선명상 대중화에 발맞추기 위한 명상상담사 자격증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명상상담사 모집인원 100명은 선착순 조기 마감됐고, 올해 접수 및 배출인원은 600~800명으로 예측된다. 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소유실천운동본부’를 ‘마음챙김행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했다. 비영리단체로서 필요한 면모를 갖추고, 포교사단 산하단체임을 분명히 하도록 회칙도 수정했다.

김 포교사단장은 “2025년 남은 기간 불교문화해설사, 명상상담사, 불교의례 이수증 제도 등 포교활동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리플레이교육사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어를 위해 단상에 오른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 부처님법 전합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포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선업 스님은 최근 종교인구의 변화를 언급하며 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범 포교사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대상인 총무원장상은 강수대 부산지역단 포교사와 경북지역단 염불포교 고운팀이 수상했다. 강수대 포교사는 금정총림 포교사회 포교사 고시반 창립을 이끌고 20년간 강의하며 포교사 육성에 기여했다. 부산종립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힘썼다. 열불포교 고운팀은 난치병 어린이돕기 108배 정진 행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등 활발한 지역 포교 활동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됐다.

이밖에도 포교원장상, 총재상, 단장상 등 개인 60명과 3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군포교 활성화에 헌신한 팀들을 위한 시상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최전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온 만큼,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한편 포교사단은 기념법회에 앞서 불교문화해설사 지도자 해설시연과 2024년 사업결산, 감사보고를 안건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 활성·내실화 나선다

전법특임교수 이어 회장 위촉
열린전공학부 새 동아리 창립
신행마일리지 도입, 참여 독려
MZ 콘텐츠 담아 영캠프 개최



행사를 마치고 학교 및 법인 주요 관계자들과 불교동아리 회장단, 지도교수, 지도법사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으로 캠퍼스 전법의 새 지평을 열었던 동국대가 동아리 활성·내실화를 통해 교내 전법 열기를 이어간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3월 13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불교동아리 장학증서 수여식 및 지도교수, 전법특임교수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국대는 17개 불교동아리 회장들에게 동국건학장학생 장학증서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동아리 회장들은 연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오는 9월 24일 열리는 ‘2025 영캠프’의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템플스테이 체험권 1000장을 전달하며,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동국대는 17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를 위촉했으며, 새로 창립될 예정인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전법특임교수로는 불교대학 불교학부 강사 도업 스님을 위촉했다.

앞서 3월 12일 열린 ‘제29차 건학기 본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조상식 다르마칼리지 학장은 “열린전공학부에 새로운 불교동아리 창립이 준비 중이다. 최근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의 면접을 봤다”며 “뛰어난 인재들이 불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7일 처음으로 전법특임교수를 임용·위촉한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회장단·지도교수를 위촉하며 교내 전법 내실화의 기틀을 다졌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활동 강화를 위해 신행 마일리지인 ‘드림 패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드림 패스 마일리지’는 동아리 가입, 영캠프 참여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적립할 시 불교계 장학과 우수 활동 포상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훈인 ‘동국중흥이 불교 중흥’을 강조한 이사장 돈관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도법사와 학생, 지도교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대학생 전법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동국발전이 불교 중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국대학의 건학 정체성을 이어가는 ‘주인공’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불교동아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금산복지센터 개원

3월 10일, 사회복지사업 본격화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발원



한국불교 태고종이 사회 복지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10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648-2에 금산복지센터 개원식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알렸다.〈사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아래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라며 “복지재단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 종단의 긍지를 만들자”고 태고종 복지재단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위원장 성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금산복지센터는 태고종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첫 번째로 개원하는 센터로 그 의미가 크다”며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종단의 뜻을 반영한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00만원을 쾌척했다.

한편, 금산복지센터는 총무원 사회복지부 혜담 스님이 센터장 소임을 맡아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봉녕사 승가대 입학…“위없는 도 성취하길”

승가대학 8명·대학원 8명 총 16명
출가학교 거쳐 입학 결심도 ‘눈길’



한국불교 비구니 교육과 계율 수행 중심지인 봉녕사에서 수행의 길을 이어갈 새로운 학인스님들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3월 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2025년 봉녕사승가대학 및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입학식’을 거행했다.〈사진〉

올해 봉녕사에는 승가대학에 8명, 금강율학승가대학원에 8명(전문과정 6명, 연구과정 2명) 등 총 16명의 학인스님이 입학했다. 특히 올해 입학생 가운데는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1기 졸업생 여초 스님과 월정사 출가학교 57기 졸업생 법인 스님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분은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하고자 출가했을 것”이라며 “봉녕사의 청정하고 넓은 품속에서 모든 애착과 의심의 그물을 끊고 위없는 도를 성취하는 봉녕인이 되길 발원한다”고 축하했다.

무엇보다 이번 입학식에는 출가학교를 거쳐 출가의 길을 선택한 학인스님들이 있어 출가학교의 의미 있는 결실을 보여줬다.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1회 졸업생 여초 스님은 출가학교에서 만난 스님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에 출가 결심에 싹을 틔웠다. 여초 스님은 “대중 속에서 화합하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를 어루만지며, 물러남 없는 정진으로 부처님 법을 알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월정사 출가학교 57기 졸업생 법인 스님도 출가학교에서 한달 동안 108배, 삼보일배, 참선 다양한 승가생활을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출가를 결심했다. 법인 스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부처님 법을 만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불교에 귀의하도록 이끌어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 공동체를 이루는

보살계산림

菩 薩 戒 山 林

4. 2 (수) / 4. 4 (금)



기간 : 2025년 4월 2일(수) ~ 4일(금)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_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 ~ 9시

불지종가·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